

우여곡절 장흥풍력발전소 불허가 방침

군 관리계획위 자문위, (주)한국서부발전측 개발행위 ‘제동’
자연환경 훼손·식수원 오염 우려·주민과의 갈등 문제 지적

10여년 기대반 우려반 끌어온 장흥풍력 발전소의 허가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장흥군은 최근 관리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어 (주)한국서부발전측이 군에 낸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일원 8만 2229㎡에 16.1MW(2.3MW×7기) 풍력 발전소 허가신청을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끝내 불허가 방침을 내렸다. 군 관리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

에서 관련 사업부지 일원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생태축이 절단돼 경관이 훼손되고,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풍력발전소 개발행위 불허이유를 내세웠다. 또 사업지역 진입로 1km에 이르는 산천계곡이 훼손·교란돼 경관과 미관훼손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하천오염 및 식수오염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밖에 사업부지 내 편백나무와 굴참나무 등 7400여주 수목훼손으로 자연생태계 파괴와 정상부 절단에 따른 토사유출과 지형변화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흥풍력발전소추진은 (주)한국서부발전측이 지난 2010년 11월에 장흥군과 ‘저탄소녹색 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을 거쳐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영산강환경유역청, 문화재청, 산림청 등 복합민원)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 보완 요구 과정 등 우여곡절 끝에 불허방침이

내려졌다. 이같은 풍력발전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에 대해 (주)한국서부발전측이 장흥군 관리계획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산면과 유치면, 장평면 등 15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장흥풍력발전건설 반대대책위(위원장 김선홍)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31개월째 장흥군청과 장흥서부발전 사무소 앞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기관 해도 심신이 정화되네

장흥군 우드랜드 ‘사색의 숲’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이 우드랜드 ‘사색의 숲’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 7일 장흥군에 따르면 편백숲 우드랜드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색의 숲’은 편백숲 우드랜드 내에 있는 1.2ha 규모의 숲으로 지난 2016년 풍욕장(비비에코토피아)에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사색의 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사용됐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연체험 활동, 요가, 명상 등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우선 하늘데크 진입로 주변에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통천문, 하늘문과 같은 출입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숲 가운데에는 ‘시와 동행하는 테마길’, ‘사색의 길’ 등의 치유 목

적 공간을 추가 조성한다. 군은 제1, 2체협장을 데크길로 이어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고 황톳길과 흙길, 아자매트길을 꾸민다. 새로 조성한 산책로는 평화의 길, 맨발 산책로로 만들어 기존 시설물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숲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물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의 해먹존에는 2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데크를 놓고, 평상존에도 20인 이상 이용 가능한 평상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좌선대와 하늘데크, 토굴 등 명상과 휴식이 가능한 시설물을 만든다. 이밖에 숲에는 편백을 추가로 심어 전기관 해도 심신이 정화되는 숲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난 2일 열린 강진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준공 기념식에서 이승욱 강진군수와 위성식 군의회위원장, 이흥묵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준공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다산 정약용 유배길 걷는다

9~21일 ‘해배길 걷기’ 행사

목민심서 저술과 다산 정약용 선생 해배(귀양을 풀어줌) 200주년을 맞아 전남 강진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해배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 강진군은 다산이 유배지인 강진에서 고향인 남양주까지 걸여간 해배길 걷기 행사를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개최한다. 한글날인 9일 강진아트홀에서 KBC 국악토크콘서트와 함께하는 개막행사를 개최한다. ‘다시, 다산’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는 국악 토크콘서트에서는 정조, 유배, 애절양, 목민심서 등 다산의 삶을 주제로 소리꾼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다산의 18년 유배기간 중 처음 4년간 머물렀던 사의재에서 강진아트홀까

지 강진풍물패가 길놀이를 한다. 11일에는 나주 율정에서 일일주막 행사를 개최한다. 나주 율정은 신유박해로 강진으로 유배가던 다산과 흑산도로 유배가던 형 정약전이 이별을 한 곳으로 다산이 해배된 뒤 율정 주막에 머물며 통곡했던 곳이다. 20일에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다산의 삶·다산의 꿈, 다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다산의 유배생활, 목민심서 저술, 해배, 해배 이후의 삶 등에 관해 참석자들과 문답토론을 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전 국민이 이번 행사를 통해 역경 속에서 이룩한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성취와 그의 정신을 돌아보며 삶과 생활의 지혜를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 군동면에 ‘벼 건조저장시설’ 완공

국비 등 11억여원 투자...농가 산물벼 출하 편의
서울시에 ‘먹거리 공급’ 급식지원센터 준공식도

강진군에 산물벼의 과학적인 건조와 저장으로 양질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벼 건조저장 시설이 완공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동면 석교리에 위치한 강진농산물유통센터 광장에서 ‘벼 건조저장 시설(이하 DSC) 및 서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 기념식이 개최됐다. DSC 시설은 국·도·군비 지원 7억 2000만원을 포함, 총 11억 1600만원을 투자해 30톤t 건조기 27기와 500t 저장시설 2기, 30t 원료투입구 1기를 갖추게 됐다. 이번 DSC 시설 설치로 군동면 농민들의 산물벼 출하에 편의를 도모한은 물론 과학적인 건조와 저장으로 양질의 쌀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서울시 동작구와 매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한

공공급식 센터는 도·군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원 가량을 투입, 농산물 선별뿐만 아니라 저온저장, 소분실, 전처리 시설 등을 구축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이용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DSC 및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민선7기가 지향하는 농림축수산업의 부가 가치를 육성하고 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강진농협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서울시 및 지역학교에 우수 식재료를 공급,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는 한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현대삼호중공업 노사 올해 단체교섭 마무리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윤문균) 노사가 2018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회사의 재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4일 회사 생산관 앞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되어 ‘2018년 단체교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최근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격려금 100%+300만 원 지급 ▲사내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다. 현대삼호중공업측은 “노사간 단체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하반기 생산공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군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 사업’ 교육생 모집

영암군은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사업’ 창업교육생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영암군 청년상인 육성 창업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예비창업자로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영암군으로 이전·유지 가능한 자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